

## 인 사 말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중앙총회의원 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9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1대 핵심과  
제 25개 주요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사고과제도 시행, 종단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승가복지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 국립공원 제도

**개선, 사찰음식 대중화, 화쟁위원회 활동, 승가교육 개선, 신도교육과 조직화 등의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다소 부족하거나 소통이 미숙했던 일부 사업과 현안 문제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소통으로 종책을 종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앙총회 의원 스님들에게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중앙총회에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종법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승려법은 지난 총회에서 개정된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은 올해로 만료되는 교육불사 특별회계를 연장하기 위한 내용이며, ‘예산회계법’은 승가 교육진흥기금과 승가복지기금 등 각종 종책불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회에서 이월된 종법 중 종무원법, 신도법 등도 금번 총회에서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종교들과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과 공직자들의 불교계에 대한 폄훼와 종교간 평화를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여 종교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단 내외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종도들의 종단에 대한 기대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타개하고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종단과 종무기관의 역량은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도의 보완, 재원의 확충, 인재의 육성 등 선결 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내외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 종무행정에 반영할 것이며, 중앙종회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기2555년도 종단의 세입세출  
예산안도 효과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이면 14대 중앙총회가  
마무리 되고 15대 중앙총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제14대 중앙총회는 168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활동, 예결산  
심의활동과 종단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총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단의 제도와 종무구조의 발전, 그리고 안정적 실현을 위해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종무원법, 법계법, 교육법, 승가고시법, 신도법 등 많은 종법들을 제·개정했으며, 종헌을 개정하여 각종 심판기구 운영의 공정성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와 환경문제 등 대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종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종비수행관 신축 등 승가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법령을 제·개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총무원  
집행부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14대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회의원  
스님들의 종단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9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